

다니엘 케이 다르코 박사, 감옥서신, 15차, 그리스도를 자랑함, 빌립보서 3:7-4:1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세션 15,
그리스도를 자랑함, 빌립보서 3:7-4:1입니다.

감옥서신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빌립보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보셨습니다.

저는 바울이 실제로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2장에서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으라고 요청한 방식에 대해 빠르게 여러분의 생각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장의 마지막에 이르러 그는 또한
교회의 모델이 될 두 가지 핵심 인물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3장에서 3장 1절의 문제를 확립한 후, 저는 바울이
반대자들을 개, 육체를 훼손하는 자, 자기 방식에 갇힌 자, 악한
일꾼이라고 부르며 경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의 한 특정 부분을 다루고 실제로 이들이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만,
누구든지 육체로 자랑할 이유가 있다면, 그는 자랑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특권과 얻은 특권을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제가
마지막 강의를 7절에서 9절까지 읽어준 것은 바로 그 맥락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로 여겼다고
썼습니다.

참으로 나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의 뛰어난 가치 때문에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든, 그가 앞서 언급한 특권, 그의 국가적 정체성,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종교적 지위, 박해에 대한 열정 면에서 흠이 없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는 자신을 이러한 열렬한 박해자 중 한 명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가 언급하기에 명예로운 훈장이라면, 그는 그들을 손실로 간주합니다. 그들이 하찮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하면, 그들은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회에 강력한 요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가치는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과 육신의 것들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른 표현을 하자면,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배경, 교육과 종교적 지위에서 교만의 옷을 벗고,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순종하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겸손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알 만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탁월한 가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의 탁월한 가치, 인지적으로나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그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그 단어를 사용할 정도까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는 그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특권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질문으로 이끕니다.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쓰레기를 지칭하는 데 사용한 단어입니다. 미국에서 이 강의를 따라한다면, 우리는 쓰레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용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배설물을 나타내는 단어, 별칭 똥일 수 있습니다.

또는 똥을 뜻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개에게 음식 낭비를 뜻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생생한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중 어느 단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중 어느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부심을 살펴보면, 바리새인의 모든 자격증을 살펴보면, 그는 타르수스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는 바리새인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 쓰레기, 낭비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 개 사료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개는 선반에서 사료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개는 한 번에 남은 사료에서 사료를 가져오거나, 쥐나 무언가를 찾아다니며 스스로 잡아서 먹이라고 합니다. 풀은 그 모든 것을 손실로 간주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는 그것들을 쓰레기, 배설물, 낭비로 여긴다. 바울이 1분도 지나지 않아 그의 유대인 정체성과 그가 얻은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결코 그의 모든 업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비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업적, 학위, 직함, 그리고 개인적인 자부심과 명예를 위해 언급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어떻게 비교합니까?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뛰어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모든 특권이 쓰레기로 여겨집니다.

한 학자는 자신의 말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울의 모범만 따라야 합니다. 사실, 그의 그리스도인 모범만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교도들이 빌립보 청중에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제공했을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모두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폴에게는 실제로 자랑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업적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그들은 쓰레기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자랑할 만한 좋은 이유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자들은 바울이 실제로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그의 특권에 대한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그는 “나는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율법의 문제에 대해 “나는 의롭고, 나는 흠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일까요? 글썄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겪었던 투쟁을 지적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흠이 없을 때 다른 법을 결코 비난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 그는 자신이 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요세푸스의 글을 읽어드렸듯이, 사회조차도 바울이 속한 바리새인들이 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회는 그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여 요세푸스의 말을 다르게 표현했다면 흠이 없다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대 역사가들이 바리새인에 대해 알지 못했던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어느 시점에서는 법에 대한 순종을 어떤 형태의 투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로맨스는 한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랑할 이유, 자랑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 자랑하기로 선택한 것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는 그가 자랑하기로 선택한 것,

뛰어난 가치 또는 뛰어난 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척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맨 위에 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할 것입니다. 워더링턴은 이것의 일부를 설명하려고 하면서, 이 전체 담론은 죽음까지도 충실함과 순종의 좋은 본보기에 호소하는 문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에 합당한 방식으로 마지막에 사는 삶. 빌립보서 2:5-11에서 다시 말한 예수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몸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희생적인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7-9에서 우리가 계속 논의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시험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따를 만한 좋은 모범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더 큰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요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한 학자가 만든 간단한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차트는 옛 것에서 새 것으로의 이탈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모세 실바는 7-8 절에서 영적 파산에서 이탈하는 것을 이런 용어로 보여줍니다. 그는 실제로 옛 바울이 말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내가 손해로 여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축축하거나 쓰레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로운 삶에 관해서는 그는 항상 대조를 이룹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삶에서 그것들을 손실로 여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모든 것을 잃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특정한 이미지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르치는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바울을 연구하는 것은 저에게 흥미로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제거하면 기독교도 제거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것들 중 일부가 영적 파산의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이세스 실바 같은 사람은 이 영적 파산이 매우 멋진 주제로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이것 중 일부에 체계적인 신학을 읽으려고 했지만, 저는 그것이 여전히 꽤 잘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9절.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임하여, 율법을 통해 온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온 의로움, 곧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로움을 말합니다.

모이세스 실바는 오, 맞아요, 이건 정당화의 신학이에요. 의로움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받은 의로움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이에요. 그는 10절이 거룩함에 대한 또 다른 신학적이고 중요한 신학적 요점을 제시한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거룩함 안에서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음에서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썄요, 실바가 과장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10절에서도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음에서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종말론적 오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실바는 신학적 틀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요점을 제기했습니다. 바울과의 대화에서 바울의 새로운 요점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더욱, 더욱 강한 헌신과 책임감으로 부르기 위해 군사적, 운동적 이미지를 예시하고 도입할 것입니다.

12절에서. 내가 이미 이것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온전합니다 . 또는 나는 이미 온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그분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힘씁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힘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값을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우리 중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만 우리가 얻은 것을 굳게 붙잡자.

바울은 부름에 대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멋진 이미지를 꺼낼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과정에서 오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이 모든 조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 줄 직후에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강력한 성명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가 그가 축복에 대한 모든 영적 성숙을 실제로 가졌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그것이 그가 여기서 말하는 요점입니다. 그는 빌립보의 로마 식민지, 빌립보의 군사 활동, 빌립보의 운동 활동에 실제로 알려진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것을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공유하는 무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식민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것을 사용하여 실제로 자신의 요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복음의 진로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나아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계속해, 그는 말했다. 복음적 삶은 목적에 의해 주도된다. 이제, 릭 워렌에게 가지 마.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너무 느슨해서 기독교 안에서는 경계가 없고, 목표도 없고, 가면서 변화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세상이 가는 방향에 따라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름의 목표와 목적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오는 모든 것은 기독교적 가치나 미덕으로 정의되는 것을 오염시키는 데 초대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니요, 기독교적 일은 목적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목표를 향해 밀고 나아갑니다. 사실, 나는 당신에게 이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 사람이 목표를 향해 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육상을 생각해 보세요. 월드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그것을 위해 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자.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초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운동 부모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규율 있게 행하여 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거기에 트로피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5학년이나 6학년 때 했던 리틀 리그 트로피를 선반에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야.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상이 아니야. 나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는 상을 말하고 있어.

풀은 내가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을 갈고 닦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계속 나아가고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그와 함께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라도 그를 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우.

와우. 15절과 16절은 끊임없이 나에게 도전합니다. 바울은 사고방식 아이디어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천상의 사고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어린 소녀이든 어린 소년이든 여행을 했던 당신의 아빠가 당신이 모든 집안일을 잘 하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의 조건은 당신이 모든 집안일을 잘 한다면, 그는 이 여행에서 당신에게 꿈의 선물을 사서 와서 전달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빠가 없을 때 집안일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어때요? 글썄요,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아마 할 거예요.

아마 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나한테는 너무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어. 아니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시간을 꼭 쏟고 싶어?

나는 집안일을 한다. 엄마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형제들이 내가 모든 집안일을 다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내가 꿈꾸던 선물이 도착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가치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자연스럽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성취하려는 동기를 형성합니다. 바울은 결국에는 달성해야 할 대가가 있다고 말하며, 그 대가를 하늘에 두고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그 기대를 갖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데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최근까지 저는 제 시간의 절반을 목회와 교육에 보냈습니다. 반 시간. 제가 반 시간이라고 말할 때는 두 번의 풀 타임을 뜻한다고 말해야 할 겁니다.

목회적인 일을 하다 보면 병원에 자주 가서 병자를 방문하고 기도하고, 누군가의 생애 마지막 날을 함께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신과 의료진이 그들을 돕고 회복할 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그들의 신에 대한 인식은 다릅니다. 저는 당신이 완고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데 거의 미지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데 진지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이 여기 있는 모든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삶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은 그 천상의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그것이 당신을 이끌고,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도망치는 도피주의적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저는 그가 교회가 세상에서 빛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도전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찬 요소를 줄 사고방식을 개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간략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영성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오해를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영적 완벽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모든 콘돔 쓰레기를 버리고 온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추구했다는 사실이 그가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에게 영적 완벽함이 지속적인 추구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합니다. 그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항하지 않습니다.

야, 그는 그 장소까지 걸어가는 게 아니야. 그는 계속 나아가고 있어. 아마 5년 전쯤에, 나는 그 단어를 배웠을 거야, 같고 있다.

제가 설명하려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어 단어 한두 개를 얻을 때마다 저는 항상 흥분합니다. 그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입니다.

가볍지 않아요. 그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여정이 강렬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최전선의 군인만큼이나 강렬하거나, 경쟁에 나선 운동선수만큼이나 강렬합니다. 어떤 종류의 운동 경기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글썄요, 저는 축구에 참여했고, 말씀드리자면, 잘 지는 법을 배우는 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잘 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게 경기장에서 내 경쟁심에 대한 단서를 줄 겁니다. 우리가 이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때때로 제가 함께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친구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정도로 성숙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가끔은 잠시 잃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제안의 일부로 지는 것을 전혀 제안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전투에서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나, 왕관을 차지하고자 하는 운동선수가

열심히 플레이하고, 열심히 일하여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채택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로서 경기를 시작하고 경기에서 이긴다는 것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운동 규칙은 항상 당신이 경기를 하게 될 팀이 당신의 팀과 호환되는 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0%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통계는 때때로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통계는 종종 스포츠에서 틀렸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노력, 일, 규율, 집중이 모두 작용하며,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그렇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3장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시도하면서 17절의 몇 가지 핵심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맥락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는 글을 쓸 것이고, 우리에게서 본을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주시하십시오. 와, 꽤 거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고 지금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이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심이며, 마음은 세상적인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20절을 주목하세요. 나중에 그 구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비록 당신이 빌립보에 있고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에서 우리는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와우. 바울을 본받으세요. 바울은 17절에서, 4절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가 말하는 것, 나는 이랬다, 나는 이랬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나는 전부였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 이제 그는 자신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을 예로 들어 자신의 수사적 전략을 펼치고,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만약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예가 여러분에게 혼란스러울 경우, 만약 여러분이 내 배경과 추구와 훈련에 대해 말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 나에게서 배우세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 사역에서 잠시 멈추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하는 리더를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내가 발견한 리더들은 이런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큼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우러러보세요. 그리고 나를 우러러보지 마세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투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도전적인 일에서 바울은 지도자로서, 사슬 속의 사도로서, 그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악한 일꾼들이 아니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사람들을 언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17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들.

그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형제 자매 여러분, 형들에게서 배우고, 하나님의 눈에 옳은 일을 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일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 외에도 다른 좋은 본보기를 본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원수들은 묘사된 바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잘 되는 것을 보려는 명확한 의도나 욕망이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로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를 염려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면, 그들은 주의가 산만해져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네, 누군가를 적이라고 부르나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적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바울은 그것이 바울에게는 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에 대해, 이 학자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FF 브루스 로마 식민지의 시민으로서 그들은 모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그 존엄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므로 지상 환경에서 천국의 시민은 조국의 이익을 대표하고 시민권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시민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시민권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진정한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시민권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여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호소하여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자부심은 모두 제쳐두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이라면 챔피언이 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대단한 것 중 하나는 비자 없이 미국 여권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에 갈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러한 국가 중 일부에 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오전 3시에 일어나서 줄을 서서 8시에

대사관에 들어갈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 시민권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곳 중 일부에서는 미국 시민이나 영국 시민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캐나다 시민이라도 그게 가장 좋습니다. 캐나다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고, 적대 세력도 별로 없거든요. 이런 모든 곳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미국 시민, 캐나다 시민 또는 영국 시민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큰 자부심이 시민권인 곳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은 주요 기독교 지도자 중 한 명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뚤어지고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야 하고, 순종하는 천상의 사고방식으로 위쪽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왕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을 벗기고,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의 근원을 낮추고,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고방식을 개발합시다. 당신이 미국 시민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캐나다 시민이나 영국 시민이라면? 바울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뜯어내려고 한다고 느끼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빌립보인들에게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시민권, 당신의 가장 큰 자부심의 근원은 로마 시민권이 아닙니다.

당신은 천국의 시민이며, 시민권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모든 시민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는 실제로 국가를 대표하고, 모든 자부심과 존엄성을 가지고 살고, 국가의 가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의 시민도 그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의 시민권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에서 우리는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오시고, 그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 자기의 사람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속하는 곳이고,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집중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어두운 죄의 세상에서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천국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리고, 순진한 사람만이 믿는 어리석은 개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하늘의 시민들은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적들의 추격을 피하라고 요구합니다.

십자가의 적들은 멸망을 위해 정해졌습니다. 십자가의 적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 또는 배입니다. 바울이 여기저기서 이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학자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그들은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타협할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그저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일까요? 이건 어떤 표현일까요? 제 말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신이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신인 대문자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입니다.

그들은 배를 숭배합니다. 그들은 음식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타협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누군가가 내가 맥도날드 메뉴에 있는 빅맥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자신의 선천적 권리를 팔 준비가 되었을 때의 성경적 이야기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입니다. 십자가의 적들.

하지만 여름철에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려고 여전히 제 인생을 바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서구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의, 거의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뻔뻔스럽게 그리스도를 비난하여 친구들을 유지하고 사람들이 인정, 수용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 서구 세계에서 얼마나 쉬운지, 제 아랍인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듯이, 최악의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친구와 친척 중 일부가 그리스도를 위해 매일 목숨을 잃고, 자신이 일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는 경우.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이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푼돈을 위해 유다 이스가리옷처럼 예수를 배신할 것이다. 십자가의 적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적들은 그들의 수치심 속에서 영광을 얻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에 대한 영광은 부끄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와 부끄러움이 큰 문제인 상황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이 큰 이슈이자 낙인인 상황에서 그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명예의 상징처럼 부끄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중 앞에서 말하고, 대중 앞에서 행동하고, 실제로는 비참한 일을 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 중에 하이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명을 만났고, 몇몇 장소에서 한 명 이상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의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고, 보통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에 연루되어 있을 뿐이고, 제 말은 그들이

삶을 살 수 없고, 약물을 체내에 넣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 외에는 삶에 만족할 줄 모릅니다.

나이트클럽에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창피한 옷차림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이 멋지다고 생각하나요? 부끄러움에 빛나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감각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악덕을 마치 미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하기에 부끄러운 것들. 요즘 현대 교회에서 온갖 문제에 대해 논쟁하고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에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새로운 일이 아닙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사고방식 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세상적인 것들에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세상적인 것들에 있습니다. 여기의 세상적인 것들에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는 것,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지위와 것들을 얻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특정한 인정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것, 바울이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세상적인 것들에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틀에서 호소할 것입니다. 20~2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지키십시오.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결과가 그가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암시한 세 가지 생각거리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가 넘치는 것으로 발견되기를 바라는 희망에 반하여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십자가의 적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이 비천한 몸에서 사는 삶이 원하는 목표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셋째, 빌립보서 2:15를 떠올리면,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겸손과 순종이 결국 높임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높임받는 지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와! 만약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포착한다면, 바울이 4장 1절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것을 근거로 하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성경에서 성경 구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어떤 번역자들은 1절을 3장의 끝과 함께 나누고, 어떤 번역자들은 4장을 시작으로 전체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1절과 함께 읽으면 어떻게 읽힐지 강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근거로,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그는 다시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과 나의 면류관은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매우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바울은 여기서 거의 낭만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3장의 끝이나 4장의 시작과 함께 장의 끝으로 읽으면 이 구절은 이전 논의에서 추론한 것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교회와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리워했던 사람들이고, 그는 그들을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당신이 젊은이라면, 나는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교회에 있는 젊은 여성에게 편지를 쓰고 이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이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에 대한 가장 깊은 감정, 느낌, 사랑, 애정을 주저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강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그들이 그의 기쁨이자 그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와! 여기 면류관은 그가 이룬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그의 기쁨과 면류관이 지금 을 가리키는지, 그의 기쁨과 면류관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의 기쁨과 면류관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둘 다 거기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둘 다 말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모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보는 대로, 실제로는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게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그를 기쁨으로 채웁니다. 그들은 그가 그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왕관이며, 언젠가는 그들이 그의 기쁨을 완성하고 실제로 그가 궁극적인 상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나에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현재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둘 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말한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강력한 훈계를 합니다. 그들은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확고부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안에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와우. 그럼, 지금까지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3장까지 다루었던 것과 이 특정 강의에서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데 있어서 이 급진적인 순종을 요구한 다음 모범을 세우기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이 강의에서

모범을 세우면서, 그는 자신의 모범을 세우고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시겠지만요.

그런 다음 우리는 그의 운동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천상의 사고방식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 시작했습니다. 바울과의 이 토론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얻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교회의 연합에 관심이 있고, 겸손이 핵심 부분인 순종의 행보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교회에 경계를 촉구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유대교가 교회에 들어올 가능성을 인식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에게 이 천상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반영하게 할 수 있는 행동 방식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 도전합니다. 4장 1절에서 그가 그러므로로 시작할 때, 거기서 그의 주된 훈계는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의에서 굳건히 서라고 부를 때, 그는 이미 어딘가에서 떠내려갈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반하는 어떤 형태의 가르침, 행동 또는 무언가에 굴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적이든 사회의 압력이든 굳건히 서십시오.

이 특정 강의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부르심, 굳건히 서라는 부르심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굳건히 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상의 사고방식을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며, 우리의 싸움, 우리의 투쟁,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 안의 자매라고 부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굳건히 서자.

그리고 함께, 우리는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성경 연구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연구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데 있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독교라는 이 신앙과 성경이라는 이 경전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배우고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그리스도를 자랑함, 빌립보서 3:7-4:1입니다.